BARUN

정답과 해설

원서 해부 노트 정답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 Part 4 파이널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배점: 4·6·9·11·12·13번 각 6.0점, 나머지 10문항 각 5.4점(합 90점) / 서답형 10점(부분 점수 없음)

번호	정답	해설
1	①	문화의 재료로 무엇을 만드느냐는 선택, 곧 정책에 달렸다는 주장. ③은 '선택과 정책'이라는 결론과 반대.
2	②	저축률은 근검 문화가 아니라 고속 성장과 대출 제한의 결과. ③은 유교 가치가 약해졌다는 내용, ④는 대출 '제한'과 반대.
3	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고정관념은 진짜 원인을 가린다는 요지. ①은 긍정적 고정관념도 똑같이 왜곡한다는 말과 반대.
4	②	스페인이 쫓아낸 유대인이 오스만 제국의 모든 자리에서 일함 = 스페인의 손실이 곧 이득. ④는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내용과 반대.
5	③	규율의 대가로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됨(순응). 뒤의 '순응 압력이 독창성을 앗아 간다'가 근거. ①은 정반대.
6	⑤	①~④는 몰래 유대교를 지킨 거짓 개종자들, ⑤는 골목을 돈 종교재판관들(The inquisitors).
7	⑤	동쪽 한국 · 서쪽 아프리카와 교역. ① 법학도 앞섬 ② 10~11세기 ③ 무함마드 자신이 상인 ④ 19세기까지 법 교육 불필요.
8	③	1961년 한국은 93달러로 가나(190달러)보다 '가난했다'. ①은 supposedly(그렇다고들 한다)를 옮긴 일치 선지.
9	④	주어 Sons of craftsmen and traders(복수) → were. ① 계속적 which ② could에 이은 원형 ③ 부사 ⑤ 과거 동사.
10	②	(A) 뒤가 명사구 → because of (B) let + O + 원형 → serve (C) 접속사 없이 동사를 이을 수 없음 → 분사구문 creating.
11	④	웹은 일본인의 여가관을 '불평했다(complained)' → admirable이 아니라 objectionable(못마땅한)이 맞다.
12	①	빈칸 뒤 '학자의 잉크가 순교자의 피보다 성스럽다'와 고전 번역이 근거 → learning. ②는 but 앞의 호전적 해석 쪽.
13	④	Despite that long tradition은 ④ 앞 '수백 년의 국가 이념'을 받고, ④ 뒤 Around the same period는 1945년을 받는다.
14	③	도토리 음식과 하몽 이야기에 1961년 한국 · 가나의 1인당 소득(24쪽 ¶3)이 끼어들었다.
15	④	주어진 글(햄) → (C) 햄이 중요해진 까닭(무슬림과의 싸움) → (A) That struggle의 끝 · 유대인 추방 → (B) these exiles · 로드릭.
16	①	규제를 풀자 저축이 곤두박질쳤고(plummeted), 경제 행동은 문화보다 정책(policies)이 좌우한다. ②의 soared는 정반대.
서답형	DESTINY	(1) D 1391 (2) E 1478 (3) S Beyazit II (4) T False (5) I Beatrice Webb (6) N 22% (7) Y 5% → D-E-S-T-I-N-Y. 완성 단어 destiny(운명) — 자기 검증 장치. 함정: A. 1492 · C. True · G. Dani Rodrik · B. Samuel Huntington · O. 3%.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과 일부 일본인이 도토리를 먹었다고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have p.p.)
→ Some Native Americans and some Japanese are known to have eaten acorns.

02 도토리묵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이 결코 별미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한다. (however much + S + V / no + 명사)
→ However much I like dotori mook, I'll admit that it's no delicacy.

03 기독교도와 무슬림을 구별 짓는 한 가지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었다. (단수 주어 One thing + 동명사 보어)
→ One thing that distinguished the Christians from the Muslims was eating pork.

04 개종한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했다. (사역 make의 수동 be made to V)
→ Converted Jews were made to eat pork in public.

05 술탄 바예지드 2세는 유대인을 두 팔 벌려 반겼다고 한다. (be supposed to have p.p.)
→ Sultan Beyazit II is supposed to have welcomed the Jews with open arms.

06 무슬림이 그 고전들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르네상스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if 생략 도치 가정법 과거완료)
→ The Renaissance would have been impossible had Muslims not translated those classical works.

07 장인과 상인의 아들들은 과거 시험을 치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복수 주어 + were / be allowed to V)
→ The sons of artisans and merchants were not even allowed to sit for the civil service exam.

08 우리는 그 나라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무엇이든 그 문화 탓으로 돌린다. (attribute A to B / whatever + 명사)
→ We attribute whatever socio-economic problems the countries have to their culture.

09 농업 이외의 실용적인 일은 업신여겨졌다. (구동사 수동 look down upon)
→ Practical pursuits other than agriculture were looked down upon.

10 한 사회가 문화라는 원재료로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는 상당 부분 선택의 문제다. (what절 주어 + 단수 동사)
→ What a society makes out of its cultural raw material is in large part a matter of choice.

11 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소비 증가가 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so ~ that / keep pace with)
→ The country grew so fast that the increase in consumption could not keep pace with the increase in income.

12 경제 성과를 결정하는 데 문화는 정책보다 훨씬 힘이 약하다. (비교급 강조 much + less)
→ Culture is much less powerful than policies in determining economic performance.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도토리묵에 곁들이는 양념간장의 재료	간장 · 참기름 · 양념(다진 파 · 고춧가루 · 깨)
이베리코 돼지의 다른 이름 / 그 뜻	파타 네그라(pata negra) / 검은 발굽

항목	답
최상품 하몽의 이름 / bellota의 뜻	하몽 이베리코 데 베요타 / 스페인어로 도토리
bellota의 어원(27쪽 각주 i) / 알려 준 사람	참나무를 뜻하는 아랍어 balewt / 레다 셰리프(Reda Cherif)
'Ham, Ham'의 원제 / 데뷔한 배우	Jamón Jamón / 페넬로페 크루스(하비에르 바르뎀도 출연)
강제 개종이 일어난 해	1391년
종교재판소가 세워진 해 / 거짓 개종자를 부른 말	1478년 / 마라노(marranos)
레콩키스타가 완성된 때	1492년 1월(같은 해 나중에 유대인 추방)
오스만 제국으로 간 유대인의 후손인 경제학자 / 원래 성	대니 로드릭 / 로드리게스
유대인을 반겼다고 하는 술탄	바예지드 2세
jihad의 본뜻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노력
무슬림 세계의 과학 중심지 / 시기	바그다드 / 10~11세기
유럽에서 판사가 법을 배우지 않아도 되던 때	19세기까지
이슬람과 경제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다는 두 예	말레이시아 · 두바이
1961년 1인당 소득 한국 / 가나	93달러 / 190달러
유교 문화로 경제 기적을 설명한 정치학자 / 그의 책	새뮤얼 헌팅턴 / 『The Clash of Civilizations』
1915년 일본 공장을 둘러본 사람 / 1912년 일본과 한국을 둘러본 사람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 / 비어트리스 웹
1945년 한국의 문해율 / 타이 · 필리핀 · 말레이시아	22% / 53% · 52% · 38%
한국 · 중국의 가계 저축률 정점	1990년대 초 GDP의 22% / 2010년 GDP의 39%
1960년 한국의 총저축률	GDP의 1%도 안 됨(1960년대 초 3% 미만)
2005~14년 평균 한국 가계 저축률 / 칠레 · 멕시코	5% / 10.5% · 11.4%

4-3. 통합 사고 문제 – 서론과 1장을 잇는 자리

문제

서론에서 저자는 정부 주도 산업화 시기의 한국 정부가 수출로 번 달러를 모두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계와 원자재를 사는 데 쓰려고 여가 목적의 여권을 내주지 않았다고 쓰고(10쪽 ¶6), 더 산업화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일과 삶이 시계에 맞추어 짜이기 때문에 농업 사회 사람들보다 시간을 더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16쪽 ¶2). 1장에서 저자는 일본과 한국에 시간을 지키는 산업 노동력이 없었으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런 노동력을 만들어 냈다고 하고(25쪽 ¶3), 한국 정부가 생산자에게 대출을 몰아주려고 주택 담보 대출과 소비자 대출을 엄격히 제한해 사람들이 먼저 저축해야 했다고 썼다(26쪽 ¶3).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개인의 경제 행동과 나라의 경제 성과를 정하는 데 문화보다 훨씬 힘이 세다고 본 것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 근거를 서론과 1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서론 또는 1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문화보다 힘이 센 것: Most importantly, culture is much less powerful than _____ in determining individual economic behaviour and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문화보다 힘이 센 것: policies (policy로 써도 인정)

근거 1 (예시): In the Introduction, the Korean government of the industrialization era would not issue passports for leisure because it wanted to use every dollar of export earnings to buy machines and raw materials, and people in more industrialized countries tend to be better at time-keeping because their work is organized according to the clock.

근거 2 (예시): In 'Acorn', the time-keeping workforce of Japan and Korea was forged by concrete actions such as discipline in schools and a labour law allowing long hours, and Korean household savings rose partly because the government restricted mortgage loans and consumer loans to maximize lending to producers.

채점: 단어(policies/policy) + 서론과 1장에서 근거를 하나씩 들 것 + 서론 · 1장 어휘(passports, export earnings, machines, time-keeping, clock, industrialization, workforce, discipline, mortgage loans, consumer loans, producers 등) 포함. 서론 16쪽 ¶2의 '경향이 있다(tend to)'를 단정하면 감점. 26쪽 ¶3에서 저축이 늘어난 주된 까닭은 고속 성장(소비가 소득을 따라가지 못함)이고 대출 규제는 '그에 더해(On top of that)' 덧붙인 까닭이므로, 대출 규제를 유일한 까닭으로 쓰면 감점. 1990년대 말 규제를 풀자 저축률이 3~5%로 떨어진 일(26쪽 ¶4)을 함께 짚으면 가산.